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祝 세례식**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14/4	홍소현	에디타	23/1	임아영	마리스텔라
15/3	박경환	안드레아	24/3	조병임	카타리나
16/3	유점순	마리아	5지역	황희순	아네스
20/4	조양재	안나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1Cu.-우리어머니	12월 10일(일), 12:30	강당
2Cu.-사도들의 모후	12월 10일(일), 13:30	강당
임원모임	12월 20일(수), 19:30	강당
사목협의회	12월 21일(목), 19:40	강당

●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12월 12일(화), 20:00	11구역	강당

● **알림**

- 12월 13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12월 14일(목), 시니어 아카데미 방학식이 있습니다.
- 12월 16일(토), 10시부터 성탄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 12월 17일(일)은 자선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대림 특강 (목요일 저녁 20:00)**

일자	제목	강사
12월 14일	생태적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	박정우신부님

● **대림판공성사 지역별 일정**

- 1지역/2지역 : 12월 11일(월), 19:40~
- 3지역/4지역/5지역 : 12월 13일(수), 19:40~

● **주일학교 성탄제**

- 유·초등부
 - 일시 : 12월 23일(토) 14:00
 - 장소 : 소성전

● **성탄 및 송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24일(일)	주일미사	6:30, 10:30, 12:00, 17:00(중고등부 미사) * 저녁7시 미사는 없습니다.
	성탄 밤미사	저녁 8시 ※ 대림실천표 봉헌
25일(월)	성탄 대축일	10:30, 12:00, 19:00 (6:30 미사는 없습니다.)
31일(일)	주일미사	6:30, 10:30, 12:00 *주일 저녁7시 미사는 없습니다.
	송년미사	저녁 8시
2024년 1/1(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06:30, 10:30, 19:00

● **다음 주일(12/1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2구역	청소	1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29일 ~ 12월 05일)**

교무금	9,198,000원
주일헌금	4,931,000원
박경순10만원 구상호10만원 김명순20만원 이길자10만원 손삼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감사헌금	최향순백만원 박경희10만원 최은화 5만원 염금선20만원 김이용10만원 김O옥10만원 익명10만원 익명 5만원 2구역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2/10	박혜선	조홍환	이응남 윤상기 민옥경
12/17	최경희	오성환	김영균 안상록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2/10	최창열	옥윤필	장인홍	최석준 오광운
12/17	옥윤필	오광운	최승일	최영만 옥윤필

화답송 

주님 저희에 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52. 가난한 나라들의 외채는 통제 수단이 되어 버렸지만, 생태적 빛은 경우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생물권 보존 지역이 있는 개발 도상국들은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 가면서 부유한 국가들의 발전에 계속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의 토지는 기름지며 대부분 오염되어 있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사악한 상업 관계와 소유권의 체계 때문에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위한 재화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줄이고 가난한 나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과 계획을 지원하여 이러한 부채를 갚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과 나라들은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필요한 과정을 개발하고 그 비용을 충당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주교들은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토론에서 가난한 이들과 무력한 이들과 취약한 이들의 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국경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위한 공간은 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VI. 미약한 반응

53. 이러한 상황은 누이인 지구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이들과 더불어 부르짖으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볼 것을 호소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우리의 공동의 집을 아프게 하고 잘못 다룬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라신 그대로 존재하고 평화와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위한 당신의 계획에 맞맞은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에 맞서는 문화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후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모든 이를 고려하여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도력이 부족합니다.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술-경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힘의 구조가 우리의 정치는 물론 자유와 정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